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FUTURES  
가제 : 미래  
저자 : Anna Pitoniak  
출판사: Lee Boudreax Books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 **사회에 첫 발을 내민 두 남녀, 사랑하지만 출신 배경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미래**

대학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젊은이들. 그렇게 대도시에 입성하여 취직을 하고, 집과 회사를 오가는 첫바퀴 도는 듯한 일상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장 같이 비좁은 단칸방을 겨우 얻어 살면서 숨막히는 전철과 버스에 몸을 싣고, 비싼 도시 생활비에 늘 빠듯한 살림을 참고 냉담한 직장 상사와 상대하면서 견디는 삶.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꿈이다. 백화점에 준비한 고급스러운 상품들, 밤이면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저택들, 공원 앞에서 태양 아래 번쩍이는 자동차까지, 같은 도시 속에서 너무나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았던 줄리아와 여느 야심 많은 젊은이처럼 성공한 미래를 꿈꾸던 에반이 꿈꾼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들 역시 사회라는 현실에 발을 들인 다음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예일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줄리아와 에반. 캐나다 출신인 에반에게 예일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고, 전형적인 금발 미녀에 집까지 부유한 줄리아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성공에 더 가깝게 다가간 듯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2008년 졸업한 두 사람은 함께 뉴욕 시로 옮겨가서 아파트를 구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에반은 헤지 펀드 회사에 취직했다. 늘 꿈꾸던 삶에 한 발 더 다가간 셈이었다.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삶에만 익숙하던 줄리아는, 대학에서 예술사를 공부했지만 미래에 뭘 하고 살 것인지 별다른 계획은 없었다. 그러다 비영리 단체에 보수도 얼마 안 되는 보조 자리를 얻어 일을 시작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줄리아는 방황만 거듭한다. 주변 사람들이나 졸업한 다른 친구들은 제각기 길을 찾아가는데, 혼자만 갈 곳을 잃은 기분이었다. 에반은 회사 일에 점점 더 몰두하고, 자연스럽게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저마다의 꿈을 찾아 방황하는 젊은이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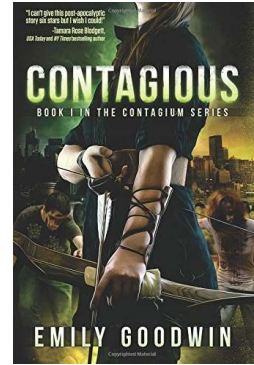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은행들도 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에반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리고 과정에서, 에반은 그토록 원하던 특권을 누리는 삶에는 위험천만한 대가가 늘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한편, 줄리아는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와 다시 만남을 시작한다.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

에반과 줄리아의 시선이 번갈아 가며 등장하면서 이제 막 진정한 성인의 길목에 들어선 두 남녀의 자화상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이다. 살면서 전혀 의도치 않게 남을 배신하고, 나 자신에게도 등을 돌리는 현실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긴장감 넘치게 전해진다.

**<저자 소개>**

애나 피토니악(Anna Pitoniak)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랜덤하우스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위 소설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제목 : CONTAGIOUS  
가제 : 전염병  
저자 : Emily Goodwin  
출판사: Permuted Press  
발행일: 2014년 7월 2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 나라를 온통 집어삼킨 미지의 바이러스, 광기 어린 폭력성을 표출하는 감염자들과 소수의 생존자들

제 2차 대공황이 덮친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스물네 살 오리사 펜웰. 다니던 대학은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만두고 말았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인디애나 폴리스에 사는 제니 이모 덕에 얹혀 살게 된 오리사는 신세를 한탄하며, 인생이 이 이상 더 추락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마치 그런 한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상한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휩쓸고, 정체 모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성을 잃고 남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끝없는 허기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속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초유의 사태를 감추는데 급급한 정부 조치로 인해, 오리사는 우연찮게 병원을 찾기 전에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오리사는 맹장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는다. 수술은 잘 끝났고, 5일간 입원했다가 다시 이모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상한 악몽을 꾸기 시작한다. 설명할 수 없는 전염병이 나라 전체에 퍼져 사망자가 속출하는 이상한 꿈이었다. 그 때만 해도 그 꿈이 현실이 될 줄은 상상치도 못했다. 그런데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오리사는, 반대편에서 쓴살같이 달려오던 남자와 복도에서 부딪힌다. 볼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수갑까지 차고 있던 그 남자는, 뒤따라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길이었다. 재빨리 상황을 감지한 오리사는 맨손으로 그를 때려 눕히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조금 뒤 어느 병실에서 깨어난 오리사. 정신이 들자마자 쓰러지던 남자의 새파란 눈동자와, 그가 목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려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런데 병원은 수술을 받았던 몇 주 전과 분명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후 총이 발포되는 소리까지 났다. 복도로 나가보려는데 병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 찾아온 의사는 맹장 수술 부위가 덧나서 다시 치료해야 한다고 했고, 진통제라며 주사를 한 대 놓고 갔는데 이것이 수면제였던 것이다.

절망한 생존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 여자, 늘어만 가는 감염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투  
귀를 찌르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린 오리사. 아까 찾아왔던 의사가 옆에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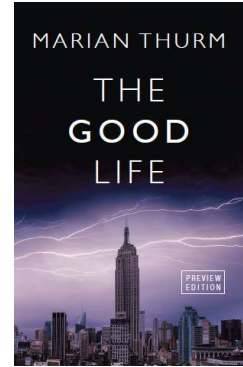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리사가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시작했다. 미국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폭력성을 보이며 온갖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반 대중들이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를 비밀에 부치고, 병원 관계자들과만 정보를 교환하며 은밀히 감염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오리사가 만나 때려 눕혔던 남자도, 병실 밖에서 들린 총성도 다 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사태였다.

쉬쉬하며 해결하려던 미지의 바이러스는 결국 온 나라로 확산되고, 세상은 온통 아비규환이 된다. 오직 자기 한 몸 건사하는 일에만 익숙하던 오리사는,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 속에서 리더가 된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강인한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한다. 참전 군인인 할아버지에게서 어릴 때부터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던 오리사는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된다. 원치 않은 자리였지만 어쩔 수 없이 맡은 리더의 역할이 부담스러웠던 오리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지금껏 살아온 이기적인 본성대로 다른 도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곁으로 다 털고 떠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남아 앞장서서 다른 생존자들을 도와야 한다. ‘전염병’ 시리즈의 첫 번째 소설로, 총 네 권으로 구성된다.

#### <저자 소개>

에밀리 굿윈(Emily Goodwin)은 《STAY》 등 로맨스 소설을 주로 발표해온 소설가로, 인디애나에 거주하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제목 : THE GOOD LIFE  
가제 : 괜찮은 인생  
저자 : Marian Thurm  
출판사: The Permanent Press  
발행일: 2016년 3월  
분량 : 278 페이지  
장르 : 소설



### 맨해튼 중심가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 운명 같은 첫 만남에서 시작된 파괴적인 결혼생활의 최후

스테이시와 로저는 서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공통점이 많았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그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4월 20일 같은 날짜에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1998년 6월의 어느 날, 한 머핀 가게에서 나란히 같은 메뉴를 포장주문하고 카운터 근처에서 서성대며 기다리다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생일도 같고, 지금 맨해튼에 살고 있다는 점도 같고, 주문한 머핀 종류도 똑같았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묘한 호감을 느끼고, 테이블에 앉아 좀 더 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10년의 간격은 있지만 롱아일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 스테이시가 하버드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기 얼마 전에 로저도 하버드 MBA 과정을 끝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둘은 서로를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서른 셋이던 스테이시는 말끔히 면도한 각진 얼굴에 자신이 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로저를 바라보면서, 금세 호감을 느꼈다. 자신을 마흔 두 살에 이혼남이라고 고백한 로저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는 꿈같이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졌다.

9년의 세월이 흐르고, 올리비아, 월 두 아이를 둔 로저와 스테이시는 누가 봐도 완벽한, 누구나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의 표본이 되었다.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사립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와 함께 부족할 것 하나 없이 사는 그들은 주변 친구들이며 가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활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로저는 매일 새벽 다섯 시까지 일에 매달리다가, 두세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유는 하나, 아무리 벌어도 예전보다 돈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쪼들리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 예전과는 달랐다. 스테이시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모른 척하려고 했다. 완벽했던 결혼이 뭔가 뼈저리는 조짐을 그녀도 분명히 느꼈지만 외면하고 싶었다. 동이 틀 무렵 로저가 겨우 침대에 몸을 누일 때면 잠든 척 했고, 로저의 몸에 살짝 손을 올렸을 때 그의 심장이 너무나 무겁게 쿵광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척 살았다. 수시로 절망에 빠지는 로저에게 그녀는 아주 조심스레,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서 이겨내 보자는 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스테이시의 입장에서선 힘겨워하는 로저를 압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었다.

###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부부의 속사정, 그것이 낳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휴가철이 다가오자 온 가족은 새벽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로 향했다. 스테이시에게 플로리다는 전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곳이지만, 시어머니 소유의 콘도가 있는 곳이라 숙박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까지 깨워가며 굳이 새벽에 비행기에 오르자는 로저의 말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남편이 신경안정제를 몇 알이나 삼켜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휴가 길에 나서면서도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로저가 매일 하루를 견디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스테이시는 모르고 있었다.

아내가 아이들과 콘도에 딸린 수영장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동안, 로저는 렌터카를 타고 팜파노 해변에 있는 실내 사격장으로 향한다. 총기 판매를 겸하는 그곳에서, 로저는 9 밀리미터 반자동 권총과 총알 한 상자를 구입한다. 그가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인터넷 검색으로 총을 살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둔 곳이었다. 플로리다 주 정부가 관리하는 규정대로 3일간 대기 한 후, 그는 총기 사용교육을 받고 그 작은 총을 건네 받을 예정이다. 열서너 살쯤, 여름 캠프에서 0.22 구경 라이플을 쏘 본 적은 있지만, 총을 사 보긴 처음이다. 대체 그는 왜 어떤 곳까지 와서 총을 사려고 계획했을까?

결혼 생활의 냉혹한 실상, 자상하고 듩직한 남편이자 아빠로 불리던 남자의 끝없는 추락. 여러 장편과 단편으로 큰 찬사를 받아 온 작가는 빠르게 전개되는 이 가족의 이야기는 파괴적인 결혼과 특권을 잃지 않으려 무리하게 발버둥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 <저자 소개>

마리안 덤(Marian Thurm)은 단편 모음집 세 편, 소설 여섯 편을 발표한 작가로 그녀의 작품은 독일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예일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 예술석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제목 : TWELVE THOUSAND MORNINGS  
가제 : 12,000번의 아침  
저자 : Mary Driver Thiel  
출판사: Pine Lake Press, LLC  
발행일: 2015년 1월 27일  
분량 : 362 페이지  
장르 : 소설



**친구도 자식도 멀리하며 자신을 가꾸는 일에만 집중하던 중년 여성, 그녀의 과거와 닥쳐온 비극**

남편과 파리로 휴가를 떠난 앤. 남편은 겨우 삼일 만에 기어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성화다. 그는 휴가를 와서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받고 보내고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긴 했다. 그래도 부부가 지난 32년의 결혼생활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일년에 꼭 몇 번은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서 손발이 착착 맞는 파트너가 되어 낯선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여행에서 남편 헨리는 도무지 쉬지를 못했다. 사실 파리로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몇 주간 그는 짧은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며 늘 초조해 보이더니, 급기야 머나먼 프랑스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아직 10일은 더 남은 일정을 포기하기 싫었던 앤은 홀로 남아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 먹고 헨리에게도 통보하지만, 그는 길길이 날뛰며 허락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두장의 비행기표를 예약해버린 헨리의 손에 이끌려, 결국 앤은 격분한 상태로 비행기에 오른다. 급하게 예약한 표라 두 사람의 좌석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왜 남편이 최근 들어 안 하던 행동만 하는지, 대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을까 곰곰이 고민하던 앤은, 슬쩍 헨리가 앉은 쪽을 쳐다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헨리는 좌석에 딱 붙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마는 붉게 물들고 입술에는 붉은 반점까지 간간히 올라와 있다. 함께 아프리카며 인도, 남태평양 같은 더운 지역을 여행할 때도 앤은 그가 그토록 땀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걱정하는 앤에게 헨리는 그냥 좀 답답하지만 괜찮다고 하지만, 잠시 후 그는 갑자기 좌석에 붙은 작은 테이블을 손으로 마구 치기 시작한다. 음료가 사방에 튀고, 엄청난 고통이 올라온 표정으로, 헨리는 숨통이 막히는 듯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서둘러 승객 중에 찾아낸 의사가 달려오고, 밀기 힘든 통보가 전해졌다. 관상동맥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으며, 살려낼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슬픔, 죄책감, 고통스러운 기억을 딛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삶, 그 희망의 힘을 이야기한 소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면서 모든 가치를 패션과 체중, 미적인 수준으로만 판단하며 쇼핑에만 열정을 쏟으며 살던 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는다. 쉽사리 남을 비난하고, 몇 년 만에 만난 언니를 보면서도 전혀 체중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외모가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졌는지에 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무정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앤에게 사실 그런 제멋대로인

모습 뒤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 젊은 시절 벌어진 잊지 못할 비극에 관한 그 비밀은 그녀의 삶을 온통 잠식했고, 그 여파로 가까운 친구도 만들지 못하고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두 딸 실비아와 칼리와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서먹서먹한 관계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가 운영하던 회사가 초대형 사기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전 재산을 몰수 당하면서 앤은 무일푼 신세가 되고 만다. 남편도, 돈도, 살던 집도 다 사라지고 빼앗긴 채 기댈 곳 하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때 미시건에 사는 둘째 딸 실비아가 앤에게 손을 내밀어주었다. 친딸이지만 키우면서 애정을 쏟지도 않았고 거의 무시하다시피 키운 실비아의 제안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앤은 기꺼이 응한다. 마침내 상봉한 모녀. 실비아는 낡은 집을 고치는 중이었고, 앤은 딸을 도우면서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죄책감과 슬픔은 유령처럼 앤의 등 뒤를 떠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낯선 환경, 어색한 사람들 속에서 앤은 과거를 덮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주인공이 50대 중년의 나이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의 의미를 너무 늦게야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힘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작가가 먼저 발표한 첫 번째 소설 《The World Undone》과 이어지는 작품이다.

#### <저자 소개>

메리 드라이버-티엘(Mary Driver-Thiel)은 미술을 공부하고 미술교육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시카고에서 개인 교습을 하면서 소설을 집필 중이다.



<뉴스레터 도서 업데이트>

제목 : THE CHIMES

가제 : 종소리

저자 : Anna Smaill

출판사: Sceptre

발행일: 2015년 예정

분량 : 388 페이지

장르 : 소설



2014년 4월 9일에 소개된 소설로, 올해 2월 출간 후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2015년 맨부커상 (Man Booker Prize) 수상 후보에 올랐고, <Huffington Post>지와 <Independent on Sunday>에서 2015년 주목해야 할 소설로 선정되고 북셀러 선정 2015년 최고의 데뷔로 선정되기도 했다.

<http://www.themanbookerprize.com/news/man-booker-prize-announces-2015-longlist>

**런던을 배경으로 멜로디가 지배하는 세계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

런던으로 가는 길목, 한 소년이 빗 속에 홀로 서 있다. 그에게는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고, 언어가 허용되지 않은 이 세계에서 이정표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세계는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며 말보다 음으로, 대화보다 화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찾아가는 곳이었다. 삶은 거대한 악기 소리로 진행되고, 기억은 사라지며 반복되는 일상만 가득하다. 소년 사이먼은 추억이 담긴 낡은 천가방을 매고 거대한 음악으로 이뤄진 상상의 도시 런던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이름과 노래 하나만을 갖고 에섹스 시골마을을 떠난 그는 지나가는 마차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어머니가 전해준 메시지에겐 목적이 있을 것이다. 친절할 마부는 도시에 머물 곳이 없다면 악기 제조업자의 도제로 들어가라고 조언해 주었다. 생전 처음 와본 대도시 런던은 온갖 음악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멜로디는 너무 빠르게 흘렀고, 그 의미를 깨달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다. 사이먼은 학교와 공공기관, 교회에서 흘러 나오는 멜로디 밑에 깔린 작은 음악들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 소리, 뚝뚝한 고깃집 여인의 노래 소리, 감자 튀김과 샌드위치를 만드는 소리...그 속에서 문득 어머니가 들려준 것과 같은 화음이 들려왔다. 음악 소리를 따라 찾아간 작은 가판대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다. “네티예요?” 사이먼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어떻게 찾아온 것이냐고 위협적으로 되물었다. 사이먼은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과 노래를 알려줬다고 말했지만, 네티는 사이먼의 어머니 ‘사라 위선’을 알지 못한다며 그를 내칠 뿐이었다. 그렇게 사이먼은 낯선 도시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나는 머물 곳이 없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있다. 소중히 간직해야 할 이름과 노래가 있다.**

도심을 헤매다 사이먼이 찾아간 곳은 템즈 강변이었다. 그곳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처럼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친 몸을 누였다. ‘솔파미도레미솔파미미레도도솔솔.’ 종소리는 신비롭게 그를 채워주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비몽사몽하고 있는 사이먼을 덮친 것은 거리의 불량자 아이들이었다. 리더인 루시앙의 도움으로 싸움을 면하고 그들의 은거지인 창고로 들어갈 수 있었다. 루시앙의 노래에 맞춰 연주된 사이먼의 리코더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그를 무리에 받아들여 주었다. 그렇게 사이먼은 원래 런던에 온 목적도 잊은 채 불량자 생활에 적응해 갔다.

13개월이 흘러 어느새 생활에는 익숙해졌지만, 사이먼에게 매일 아침 “런던에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지?”라고 묻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더구나 놀라운 점은 사이먼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정확히 기억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조직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사람들이 기억을 잃어가는 이유와 어머니가 사이먼을 이곳까지 보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루시앙의 도움으로 사이먼은 그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한다. 마침내 조직의 근거지인 옥스포드에 도착한 이들은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어온 세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기묘한 음악의 세계에서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을 되찾기 위한 소년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 <저자 소개>

Anna Smail 은 작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빅토리아 대학의 현대문학 국제 연구소(IIML)에서 문예창작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5년 빅토리아 대학 출판부에서 첫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7년간 런던에서 거주하며 UCL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University of Herfordshire 에서 문예창작 강의를 했다. 현재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며 IIML 의 문예창작 석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 NON-FICTION

제목 : THE QUOTABLE FEYNMAN

가제 : 파인만 명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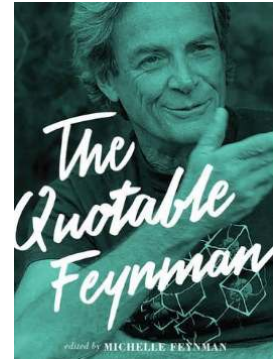
저자 : Richard Feynman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년 9월 29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특유의 유티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랑 받은 과학자 파인만의 명언들**

1965년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천재들 중에서도 가장 보기 드문 천재로 기억된다. 과학사에 남긴 엄청난 업적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의 강의, 그가 남긴 기발한 글을 통해 드러난 뛰어난 유티와 지혜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 받았던 이 개성 넘치는 과학자가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남긴 가장 심오하고, 도발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들이 이 책에 모두 담겨있다.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리처드 파인만은 현재까지 빛과 물질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이론으로 인정 받는 양자 전자역학 이론을 성립하여 노벨상의 영광을 안았다. 원자보다 작은 입자, 아원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된 ‘파인만 도형’ 덕분에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붕괴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하고, 새로 생겨날 입자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파인만의 이론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 그의 이론을 공부하면 마치 스스로 그 내용을 떠올렸다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쉽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파인만이 독보적인 천재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내면에 형성된 마법 같은 직관의 힘, 그는 이 힘을 활용하여 자연을 탐구한 인물이었다. 그가 물리학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는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가장 열정 넘치는 물리학자들 대부분이 유독 파인만에게 추종에 가까운 존경심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간결하고 겸손한 그의 논리, 인간에 향한 한없이 날카로운 시선과 애정,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는 호기심, 자연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강력한 욕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담긴 그의 말과 글 속에서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파인만의 딸 미셸 파인만이 그의 인터뷰, 강의, 편지, 저서, 기고문 등 그가 생전에 말하고 쓴 이야기들 중에서 심혈을 기울여 선별한 명언들이 총 12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대략 500가지가 넘는 이 짙막한 구절들은 눈이 깜짝 놀랄 만큼 비범하면서도 장난기 넘치는 파인만의

지성과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그만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목차>

아버지의 명언들, 미셸 파인만

회고, 요요마

추천사, 브라이언 콕스

약력

유년기/어린 시절

가족

자전적 언급들

예술/음악/시

자연

상상

유머

사랑

철학/종교

... (생략)

<저자 소개>

미셸 파인만(Michelle Feynman)은 리처드 파인만의 딸로 그의 편지를 묶은 책 《Perfectly Reasonable Deviations from the Beaten Track》과 《The Art of Richard P. Feynman》의 편집을 담당했다.

제목 : RESURGENCE

가제 : 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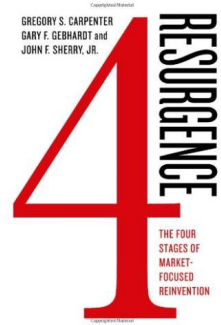
저자 : Gregory Carpenter, Gary Gebhardt, John F. Sherry, J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4년 2월 18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제, 경영



### 침체에 빠진 사업, 근본적인 변화로 그 수렁에서 빠져 나와 재기할 수 있는 4단계 핵심 전략

어떤 사업이건 표류하는 시기는 찾아온다. 모토로라, 할리 데이비슨, 맥도날드 등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경쟁자를 만나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성공한 기업은 승승장구하다가 경쟁사의 공격을 받거나 소비자의 변화나 기술 변동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해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다. 함께하던 협력사들은 자신들끼리 힘을 모으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고, 한 때 회사에 깊은 충성도를 보이던 고객들도 떠나간다. 기업이 이런 표류의 시기에 일단 접어들면 빠져나올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선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들은 갈 곳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만 한다. 하지만 방향의 시기를 맞이한 기업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무엇이 침체기로 이끌었는지 발견하고, 마침내 그 수렁을 빠져 나온 곳들이 분명히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마케팅 전문가인 세명의 저자는 현장에서 축적된 지식과 수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침체에 빠진 회사를 재기시키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점점 추락하는 회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재성장의 불씨를 지필 연료를 찾아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일궈낸 비결, 저자들은 그 핵심이 바로 자발적인 개혁이라고 설명한다.

하락세에 접어든 회사의 경영진들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조언을 듣는다. 참신한 인재를 뽑고, 컨설턴트를 고용하라는 충고와 함께 인센티브는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려오고, 회사 구조를 재조정하라는 이야기부터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조조정을 하라는 조언도 접한다. 교과서처럼 정해진 듯 제시되는 해결책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는 회사가 생길까? 바로 두서 없이 도움이 된다는 방법을 이것저것 닦치는 대로 다 시도하기 때문이다. 변화가 실현되려면 구성 성분의 고유한 특성이 바뀌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정밀한 순서에 따라 세심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 저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관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던 기업이 쇠퇴기를 거쳐 놀라운 재기에 성공한 비결을 분석하여 이 책에서 정리했다. 그 핵심을 '인지, 개혁, 정형화, 유지' 네 단계로 압축하여, 실제로 담당

하게 재기에 성공한 대형 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설명한다.

<목차>

1. 시작

1단계: 인지하라

2. 모토로라의 문제 - 변화의 필요성 인지하기

3. 팀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협력 구축

2단계: 혁신하라

4. 변화를 위한 비전

5. 대중을 향해

6. 말한 대로 실행하라

7. 소비자 여러분: 시장과의 연결고리 되찾기

8. 협력전략의 개발과 실행

9. 반대하는 자에겐 해고 통지서를, 믿는 자에겐 기회를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그레고리 S. 카펜터(Gregory S. Carpenter)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마케팅 전략을 가르치면서 '켈로그 마케팅 리더십'의 연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파이낸셜 타임즈> 등 여러 매체에 마케팅 전략 등 연구 내용을 기고해 왔다.

게리 F. 게브하르트(Gary F. Gebhardt)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한 후, 현재 몬트리올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다.

존 F. 쉐리 주니어(John F. Sherry, Jr.)는 노트르담 대학교 마케팅학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인류학 강의를 맡았다.

제목 : ARE WE SMART ENOUGH TO KNOW HOW SMART ANIMALS ARE?

가제 : 인간은 동물의 지능을 이해할 만큼 영리할까?

저자 : Frans de Waal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

분량 : -

장르 : 과학



## 인간과 동물의 지능을 비교하는 다양한 방식, 인간만 우월하다는 편견을 버린 동물 인지학의 세계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은 오직 현재만 살아갈 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건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고들 생각한다. 과연 합당한 근거에서 나온 생각일까, 아니면 그저 동물의 능력을 감추려는 시도에 불과할까? 왜 인간은 동물의 지적 능력을 대체로 폄하하는 경향을 보일까? 실제로 인간은 우리 자신의 지능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동물의 지적 능력은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왜 그럴까? 다른 생물의 정신적 수준을 연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편견이다. 인간의 태도, 창의성, 상상력이 그 확고한 편견과 거부하는 태도를 만든다. 따라서 동물이 어떤 수준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동물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마저 부인하려는 내적 거부감부터 극복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이 책의 핵심 질문이다. 우리 인간은 과연 동물의 지능을 이해할 정도로 똑똑할까?

‘동물 인지’라는 새로운 개념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서서히 그 존재감을 키워왔다. 그 시작은 100여 년 전까지 거슬러올라가지만, 최근 10년간 동물 인지 분야의 발전은 인류의 지능이 독보적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조금씩 불식시키는 결실을 거두었다. 동물 인지학은 미국의 행동학과 유럽의 행동생물학, 일본의 영장류 동물학이 서로 결합된 여러 갈래의 연구 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들 분야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바뀌면서 동물 인지학도 발전을 거듭했고, 덕분에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다른 동물들의 놀라운 지적 능력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더 많이 알아가는 추세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이 동물의 지능을 밝히기 위해 과거에 어떤 실험을 행해졌고, 오늘날은 또 어떤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본다. 행동학의 실험기법, 행동 생물학의 진화적 관점과 태생적 행동에 중점을 두는 접근법, 개별 개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본 영장류 학자들의 종단 연구 방식이 결합된 동물 인지학의 현 주소를 소개하고, 그 동안 동물의 지능에 대해 과소평가된 부분과 과대평가된 부분을 짚어본다. 인간만이 우월하다는 편견을 내려놓고 동물의 세계에 더 깊이 다가설수록 동물의 지능에 관한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태도나, 동물이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 모두 위험한

편견이다. 저자는 동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철학적인 견해와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동물과 인간의 지적 능력.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근소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들과 함께 동물 인지 연구 분야를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 변화와 그 결실을 살펴볼 수 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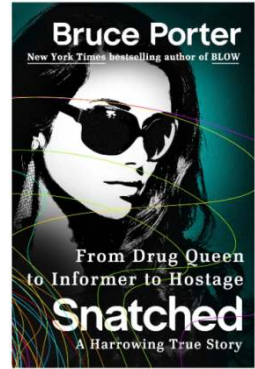
1. 마법의 우물
2. 두 학파의 견해
3. 인지 능력의 파급성
4. 내게 말해봐
5. 모든 대상에 대한 평가
6. 사회성 기술
7.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8. 거울과 물병
9. 진화론적 인지

<저자 소개>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은 생물학자이자 영장류 동물학자로, 영장류의 행동과 사회적 지능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네이처>, <사이언스> 등 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첫 번째 저서 《Chimpanzee Politics》를 비롯해 《The Age of Empathy》, 《The Bonobo and the Atheist》 등 여러 편의 저서를 발표했다. 2007년에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2011년에는 <디스커버> 선정 ‘위대한 과학자 47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현재 에모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미국 여키즈의 ‘국립 영장류센터’ 소속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제목 : SNATCHED  
가제 : 빼앗긴 인생  
저자 : Bruce Porte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6년 4월 19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전기



**코카인 거래, 돈 세탁 전문가로 위장한 잠입요원에 납치까지, 한 여성의 위험천만한 인생 실화**

콜롬비아의 최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고 유럽에서 학교를 다닌 필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의 매력과 교묘한 속임수에 꿈쩍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남자들과 사랑에 빠지면서 인생의 내리막길로 접어든 필라는, 어느덧 코카인 거래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까지 도달한다. 그러다 위태로웠던 두 번의 결혼생활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필라는 마약이 늘 따라다니는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다. 그 참혹한 소굴에서 벗어난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플로리다에 정착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새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감옥에 들어간 두 번째 남편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다. 그가 징역 기간을 줄이기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이 새로 꾸린 특별수사팀에 필라의 이름을 털어놓은 것이다. 필라를 만난 수사팀은 당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녀에게 수사를 도울 것을 요청한다. 돈세탁 조직의 우두머리로 콜롬비아의 범죄 조직 칼리 카르텔에 잠입하도록 설득한 것이다.

일명 ‘공주님 작전’으로 불린 필라와 마약단속국의 이 작전은 그녀의 활약 덕분에 수백 명에 달하는 마약거래 조직을 소탕하고 5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코카인과 함께 현금 1000만 달러를 압수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며 마약단속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가장 성공적인 작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이끈 필라의 삶은 영망이 되고 말았다. 맡은 역할을 너무나 잘 해낸 탓일까, 돈세탁 전문가라는 그녀의 위장이 너무 잘 먹혀 들면서 남미 게릴라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몸값을 요구했지만, 필라를 그 위험에 처하게 한 장본인인 미국 정부는 협상을 거부했다. 필라의 납치 문제는 특별한 권한도 능력도 없는 마약단속국 일개 직원들에게 떠넘겨지고 만다.

전작 《BLOW》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열에 오른 저자는 코카인 거래조직과 미국 수사국 잠입 요원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삶 속에서 늘 위태롭게 살아야 했던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마약, 돈세탁, 납치로 이어지는 혹독한 시간들을 거쳐야 했고, 그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14년이나 이어진 법정 투쟁을 벌였던 한 여성의 굴곡진 삶을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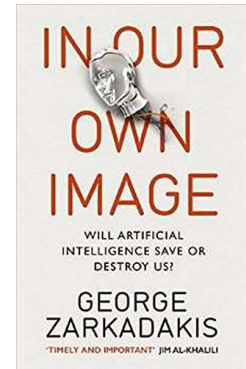
<목차>

1. 누군가의 노크소리
  2. 미스 콜롬비아
  3. 천국을 만나다
  4. 보고타
  5. 마조르카
  6. 도시의 왕자
  7. 다시 찾아온 행복
  8. 조직의 핵심인물
  9. 톰 셀렉의 귀환
  10. 안녕, 안녕 에르네스토
- ... (이후 생략)

<저자 소개>

브루스 포터(Bruce Porter)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뉴스 위크>를 거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롤링스톤스> 등 여러 매체와 신문에 글을 기고해 왔다. 첫 번째 저서인 《BLOW》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조니 뎀,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동명의 영화로 제작됐다.

제목 : IN OUR OWN IMAGE  
가제 :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저자 : George Zarkadakis  
출판사: Rider  
발행일: 2015년 10월 2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교양과학



### 인공지능의 역사와 미래, 이로 인한 과학과 인류의 운명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는 컴퓨터 과학자인 존 맥카시가 1955년에 만들어낸 용어로, 현존하는 기술 중 가장 혼란스럽고도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기술 중 하나다. 저자는 우리가 제 4차 산업혁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혁명의 핵심은 바로 인공 지능이라 말한다. 우리는 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인공 지능 기술을 원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함께 인공 지능에 대한 문화적, 철학적 뿌리를 파헤쳐보고 인공 지능 기술과 그 미래에 대해 논한다.

저자는 먼저 인공적인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매료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첫번째 파트에서 저자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소개하고 어떻게 인간이 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특별함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지능을 가진 물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의 과학적 연구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고대 신화와 '프랑켄슈타인'같은 고전작품들, 그리고 현재의 SF 블록버스터까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인공지능에 매혹되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 깊숙이 자리잡은 본능이라 말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인공지능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신경과학과, 정신에 대한 철학을 소개한다. 정신에 가장 중요한 논의점들을 설명하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 데이비드 차머스, 대니얼 데닛 그리고 존 설까지 현대 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인지, 서양문명의 철학적 근본이 컴퓨터의 지능이나 우리의 정신에 대한 생각에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이에 덧붙여 가장 최신의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를 의식이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에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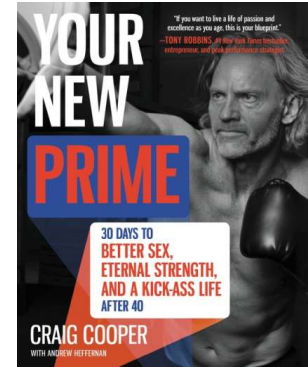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의 세계를 바꿔놓은 기술인 컴퓨터의 역사를 짚어보고, 컴퓨터 언어와 인공 지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펼쳐 보인다. 계산을 위한 기계와 배비지의 엔진부터 슈퍼컴퓨터와 사물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뇌의 신경계를 모방하는 컴퓨터식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알아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자아를 인식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지와, 이를 실현하게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가정해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공지능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잠재력을 설명하며 지능이 있는 기계들에서 발견되는 모습과, 신경학과 의식에 연계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해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한다. 인공 지능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적 본능 때문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책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문화사와 철학, 그리고 교양과학을 버무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책이다.

#### <저자 소개>

저자인 George Zarkadakis는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인공 지능에 대한 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과학 부문 작가이자 극작가,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European Commission 이나 British Council같은 기관과 협업해왔으며, 웹 기업가이자 디지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또한 <히스토리 채널>에 출연하기도 하고 <워싱턴 포스트>지나 <Aeon> 지에 글을 기고해왔다. 그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에서 기사 작위를 수여 받기도 했다.

제목 : YOUR NEW PRIME  
가제 : 새로 찾는 전성기  
저자 : Craig Cooper  
출판사: HarperWave  
발행일: 2015년 9월 1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건강



#### 40세를 넘어선 모든 남성들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다 줄 건강 관리법, 30일 실천 프로그램

나이가 드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남성 건강전문가인 저자는 40세 이상 남성들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저자는 더 건강하게, 강하게, 행복하게, 에너지 넘치게, 성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펼쳐 보인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약물에 기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증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이 들면서 불어난 체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년의 위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모든 남자들이 궁금해하지만 선뜻 물어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성 건강부터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몸에 주는 영향,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수치를 다시 정상으로 만드는 법, 올바른 영양 섭취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기억 감퇴를 막는 법, 신체적으로 최상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소개한다.

최근까지 밝혀진 과학계 연구결과와 당뇨를 물리친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후생적’ 형질을 변화시키고 노화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제시한다. 퀴즈, 표, 도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충자료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세부 내용을 찾기 쉽게 구성하여 각자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더불어 체중 감량, 에너지 증대, 성 생활 개편, 더 나은 식습관 들이기 등 각각의 목표에 도움이 될 만한 툴을 제공하고, 각 부분마다 30일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노화의 영향과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변화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일들이다. 40세 이상 남성은 물론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을 증대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 실용서이다. 이해하기 쉽고 따라 하기도 부담 없는 저자의 정보와 요령을 통해 나이가 들더라도 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목차>

1부: 당신의 'T(테스토스테론)' 탱크를 살려라 - 생명력 최대로 키우기

1장. T 충전 - 자연스럽게

2장. T 파티는 이제 그만: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는 왜 악마와의 거래인가

2부. 연료와 불꽃: 영양과 운동

3장. 새로운 전성기를 위한 연료: 영양

4장. 전성기를 위한 펌프: 40세 이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효과 만점 운동

3부. 섹스, 스트레스, 기타 혼란스러운 문제들 - 뇌, 성기능 향상법

5장. 허리 아래의 생명력: 새로운 전성기와 섹스

6장. 머리 속 여행: 지력 최적화하기

<저자 소개>

크레이그 쿠퍼(Craig Cooper)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법과 경제로 두 가지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CooperativeHealth', 'Performance Research Labs' 등 다양한 단체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허핑턴포스트>에서 건강한 노화에 관한 글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